**순종이 곧 해결책이다! / 월리스 해플린 2세**

****

† 순종이 곧 해결책이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큰 탓이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피하여

마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이제까지 닦아온 모든 기반을 한 순간에 던져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며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외친다.

‘아니, 가족들은 어쩌구?’

그러면 당신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성급히 판단하고,

즉시 귀를 닫아 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망각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처음에 왜 내가 그렇게 망설였을까?’ 하며 의아해할 것이다.

해결책은 단하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여기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신다.

(월리스 해플린 2세가 지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목소리” 중에서...)